

농협대구공판장 44년 만에 문 닫는다

두류동 31일 영업 종료

내달 3일부터 시설 현대화 태평로공판장서 통합 운영 "가격 경쟁력·이용객 편의 ↑"

농협이 44년간 운영해 온 농협대구공판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시설 현대화 작업을 마친 태평로공판장으로 농산물공판장 운영을 통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거래량도 48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8일 농협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농협대구공판장은 오는 31일 문을 닫는다. 내달 3일부터는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태평로공판장에서 통합 경매가 이뤄진다. 대구공판장에서 장사하던 중도매인 중 5명은 지난해 태평로공판장으로 먼저 자리를 옮겼고, 나머지 8명도 이달 말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태평로공판장 운영을 종료하는 건 지난 1980년 11월 문을 연 이후 약 44년 만이다. 농협은 그동안 대구공판장과 1969년 7월 개장한 태평로공판장 등 지역 농산물공판장 2곳을 운영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이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평로공판장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1년간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했다. 태평로공판장은 총 3천727㎡, 지상 3층 규모로 2천254㎡ 면적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 카페 등 편의시설, 사무실·회의실, 기계차·물류기기 보관 공간 등을 갖췄다. 당초 지난해 6월부터 통합 운



K-푸드 수출액 130억3천만 달러 역대 최대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130억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쌀 가공식품, 김치 등 147개 품목 수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하는 걸 목표로 했으나 대구공판장 중도매인 일부가 반대해 시기가 늦어졌고, 태평로공판장은 7개월가량 일부 점포가 공실 상태인 '반쪽짜리'로 운영됐다. 시설 통합에 반대한 중도매인과는 올해 설 명절 이후까지 대구공판장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전에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부터는 기존 태평로공판장에서 장사해 온 중도매인을 더해 20명이 한 곳에서 제철 과일 등 농산물을 매매하

게 된다. 거래량은 연간 거래대금 기준 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농협은 공판장 시설을 현대화한 만큼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거래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공판장은 중도매인 일부가 하매인(중도매인과 소매상 사이 유통업자)을 끼고 유통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었으나 태평로공판장에선 하매인 없이 거래하고, 그만큼 유통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는 "시설을 40~50년가량 사용한 만큼 안전 문제 해소가 필요했고, 경매를 두 곳에서 진행하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있었다"면서 "통합 이후 거래량은 오는 2027년 기준 연간 48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유티시설이 되는 대구공판장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농협 경제지주가 활용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 기자 bean@maeil.com

연휴 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통가, 내수 진작 효과 기대감

"매출 크게 늘 것" 업계 반색 여행업계도 "정부 결정 환영"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인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유통가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외식업계와 여행업계 매출이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이면 많게는 두 배까지 쑥쑥 뛰기 때문이다.

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동안 침체한 내수 경기를 풀고 관광을 활성화해 이같이 협의했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쉬 수 있으며, 31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간 쉬 수 있다.

최근 지속화하는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여객기 참사 등에 얼어붙은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하지 않을까 주목된다. 우선 유통가에선 반색했다.

대구 한 백화점 관계자는 "연휴가 길어지고 해외 여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수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등 설연휴를 앞두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동성로 한 식당 주인 A(38) 씨는 "환영한다. 평일과 주말은 확실히 매출 차이가 크다 보니 이번 연휴 기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동대구역 인근 음식점 사장 B(42)씨는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연휴 동안 붐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했다. 대구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전화가 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통원 기자 tong@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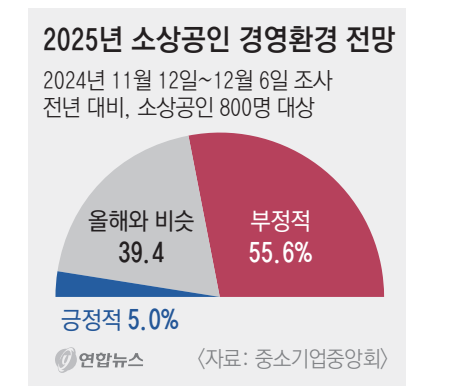
소상공인 2명 중 1명 "올해 경영 환경 악화"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 가장 부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55.6%는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복수응답)으로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43.1%), 대출 상환 부담(36.4%), 인건비 상승·인력확보의 어려움(35.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소상공인의 93.5%는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78.5%를 차지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소상공인의 73.8%는 사업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4.9%는 전년 대비 대출액이 증가하였다고 답했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의 93.7%(매우 부담 61.0%, 다소 부담 32.7%)가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부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평균 대출 금리는 4.99%였고, 5.0% 이상인 경우도 65.9%에 달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에 이어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내수의 준도가 절대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이자율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우태 기자

"우리 집은..." 거래 잘되는 아파트 비결 따로있나

지난해 대단지 중심으로 활발 유천동 월배2차아파트 1위 2위에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지난해 대구 아파트 거래 시장이 대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가격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인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급매 위주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

됐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2만 6천929건으로 2023년 2만7천277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던 2022년(1만2천238건)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달서구 유천동 월배2차아파트(2천134가구)였다. 25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4천255가구·201건), 3위는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

하늘채(1천368가구·172건)가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평리뉴타운 개발로 서구의 아파트가 거래량 순위를 압도했다. 1위는 서대구KTX영무예대음(343건)이 차지했고 2위는 서대구역반도유보라센텀(297건) 순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달서구와 수성구, 중구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거래량이 100건 이상인 아파트는 대부분 1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500가구 이하 아

파트 가운데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는 419가구 규모인 중구 남산동 해링턴플레이스더반월당이 136건(10위)으로 유일했다.

고가 거래는 수성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는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범어(26억5천만원)로 나타났다. 2위는 힐스테이트범어(21억원), 3위는 황금동 수성SK리더스뷰(19억5천만원) 순이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가 16억2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성범어W(14억7천만원)와 빌리브범어(12억8천500만원)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구민수 기자 msg@maeil.com

Ordinary Days of **BALENKEY**
- Together Balenkey -

TECHNICAL MULTISPORTS 2023 COLLECTION

PYOUNG HWA

3 year

정직한 기업, 우수한 품질, 다양한 제품들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전문 단체복 제작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국내유수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업홍보용, 근무복, 단체복 제작가능

Balenkey
폴트웨어 발렌키
아웃도어

단체복주문제작 / 대표문의전화 : 053-552-7088